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41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10,2-16)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니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향,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10,2-16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혼은 하느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가톨릭교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교회법으로 정하였고 이것을 어기고 이혼을 하게 되면 혼배조당에 걸려 정상적인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너무도 쉽게 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 가정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중 적지 않은 가정이 본인이나 자녀들의 이혼문제로 혼배조당에 걸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요즘 결혼 10년 이내에 이혼을 하는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부 간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부부 간의 문제나 자녀들의 배우자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들이 면담을 요청하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잔디밭과 민들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잔디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자신의 잔디밭을 돌보면서 큰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잔디밭에 나가보니 민들레 한 무리가 자생하여 자신의 잔디밭을 망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잔디밭을 해치는 민들레를 보고 무척 화가 나서 그 민들레를 뽑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민들레를 뽑고 나서 그는 자신의 잔디밭이 민들레가 없는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기에 매우 흡족해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잔디밭에는 또 민들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민들레를 멸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속이 상했고 민들레를 없앨 방법을 찾느라 밤낮으로 고민하였기에 식욕도 잃고 건강까지 해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농림부에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시도했던 자초지종을 열거한 후에 "제가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민들레를 없앨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하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그가 기다리던 답장이 농림부로부터 도착했고 그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편지를 부리나케 읽어 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민들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편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귀하가 민들레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쁜 잔디밭'은 '배우자'이며 '민들레'는 '배우자가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이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실 원합니다. 즉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아무런 '민들레(=단점)'도 없는 '아름다운 잔디밭(=내가 바라는 대로 맞춰주는 완전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배우자의 단점들이 무수히 보이기 시작하며 배우자의 단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대방이 그 단점들을 고치지 않는다고 무수히 다투게 되면서 부부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고 맙니다. 그러다 결국 심한 경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단점으로 인해 이웃과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통회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합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난 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같은 잘못을 또 범하게 되며 자신의 단점이 잘 고쳐지지 않음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배우자도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 부단히 노력하지만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배우자가 '단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상대방의 단점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교구 10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 10월은 목주 기도 성월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평화의 모후이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을 청하며 정성을 다해 자주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합시다.
- ※ 9월 30일에 부활반 예비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많은 예비 신자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구역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선교를 실천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이 달에 읽을 말씀: 민수기 10,11-21,35

1. 민수기 11,4-6, 11,31-32을 읽고 다음 ()안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스라엘 백성: “누가 우리에게 ()를 먹여 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 이제 우리 기운은 떨어지는데, 보이는 것은 이 ()뿐, 아무것도 없구나.”

하느님: 그때 주님께게서 바람이 일어나, 바다 쪽에서 ()를 몰아다가 진영을 돌아가며 진영 이쪽과 저쪽으로 하룻길 되는 너비로 떨어뜨려, 땅 위에 두 암마가랴 쌓이게 하였다.

2. 민수기 13,1-33을 읽고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찰하라고 보낸 사람은 몇 명인가? ()명

가나안 땅을 정찰한 날수는 며칠인가? ()일

정찰한 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 들은 누구인가? (,)

3. 다음 제시된 민수기의 성경 말씀을 읽고 ()안에 간단히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	하느님의 용서와 벌
반란	14,1-4 ()	14,30-35 ()
만용	14,39-44 ()	14,45 ()
반역	16,1-3 ()	16,30-35 ()

4. 민수기 21,4-9의 구리 뱀 이야기와 요한 3,14-17의 말씀을 연결하여 읽고 다음 ()을 채우시오

민수 21,4-9	기둥 위에 달아 놓은 구리 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요한 3,14-17	불 뱀에게 물린 사람은 ()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지낼수록 그들의 불평은 늘어만 갑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미오 제 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야

문 - 기 하 고 봉사하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보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가자 천국으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